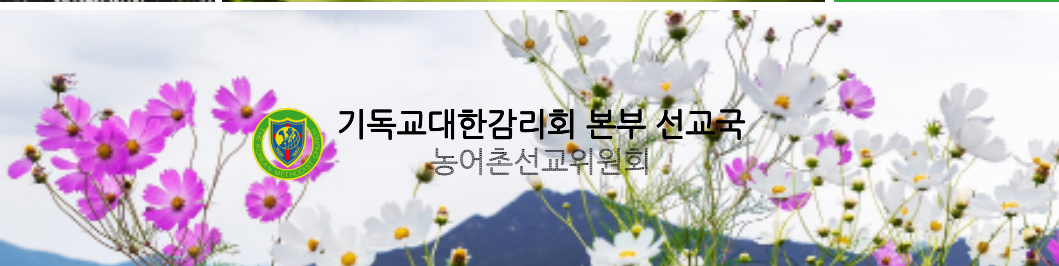


제15회 농촌선교주일
2021년 9월 26일 주일

농촌선교주일 자료집

2021년 주 제: 농민기본소득
10년 장기 주제: 농촌교회를 살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농어촌선교위원회



[목회서신]

농촌선교주일을 지킵시다.



감독회장 이 철 목사

목 차

목회서신 이철 감독회장	1
주제해설	4
예배문	
- 공동기도문	9
- 교독문	10
- 농촌교회신조	11
설교문	
- 농촌교회 설교문	12
- 도시교회 설교문	18
농민기본소득 이해	
- 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25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국내외 모든 감리교회와 성도님들께 가을의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벼를 수확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부지런한 농부의 가을들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한 농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농촌교회마다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맘 때쯤 부지런한 농부의 가을들녘 소식을 듣습니다만, 이 분들은 일 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생명을 가꾸어 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섭리를 가꾸는 일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뿌리입니다. 농부는 생명을 가꾸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은 피폐되고, 점점 고향의 꿈과 추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텅 비어 가는 농촌교회와 이를 지켜 온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든든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7회 총회에서는 농촌선교주일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15회 농촌선교주일은 9월 26일(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온 감리교회가 농촌현실을 기억하고 농촌선교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농촌선교주일은 농촌교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입니다.

올해 주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시편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128:2)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일을 해서 거둬들인 것을 자신이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모두가 평화로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농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금부담에 대한 염려와 비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신앙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일한 만큼 자신이 거두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마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가능한 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땅이라는 선물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록수>의 주인공인 감리교회의 딸, 최용신 전도사를 배출한 우리 감리교회가 최용신의 신앙고백을 본받아 제2의 최용신, 제3의 최용신이 농촌에서 생명과 희망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온 교회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농촌교회라는 뿌리를 통해 도시교회가 열매를 맺었듯, 도시교회의 나눔을 통해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촌교회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15회 농촌선교주일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한 주일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 농민 기본소득

최순양 교수(평화를만드는교회)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왜 일한 시간이 다른 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애초의 목표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는 맞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벌어야 하고 남보다 많이 벌어야 행복한 삶이 영위된다고 믿는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가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20장 7절) 놓고 있다고 하는 이들을 불러 일을 조금이라고 하게 하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

한 경제적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마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개인의 소득이 얼마인 지, 직업이 무엇인 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등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나이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재산과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이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득을 못받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계의 발달로 사라지는 직업군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나누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자신들의 세금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이미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왜 똑같이 주느냐를 가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순수히 나만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환경적 차이에 기인하여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경제력이 형성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선물”로 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소득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구에서 제한된 자원을 통해 경제력을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

으로부터 모두의 ‘몫’을 배당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보다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노동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농업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보장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도시 중심적인 자본주의 구조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은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3.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소득 전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2017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해 2027년에는 7,886만 원 수준인 반면, 농가소득은 2017년 이후 연평균 2.1% 증가해 도농 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7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 소득은 44,906천 원인 56.9%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대로 먹는”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일을 해서 거둬들인 것을 자신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먹는다는 것 이상의 뜻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동체가 평화로워야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먹고, 자신이 수고한 만큼만

돈 벌고 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될 것을 억지로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농민을 뜻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농민 기본소득은 땅을 나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제도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근본원리에 따라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합니다. 적절한 1인당 지급액은 월 3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보편적입니다. 2019년 연간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2인)은 약 3,300만 원인데 반해 연간 농가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평균 2.3인)은 1,869만 원으로 그 격차는 약 1,431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30만원이라도 지급이 되면 격차액의 1/4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출발점은 그러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생활을 보장받게 되면 단지 경제적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농업형태가 실행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가 아니라 소속이나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여성농민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농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청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출발점도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불만도 함께 생겨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땅과 그 땅에서 경작되는 농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노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농민들에게 그들이 수고한 만큼 기본적인 댓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능하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은혜와 선물을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먼저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촌선교주일 공동기도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지키지 못해
우리 스스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초래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주님을 잊고
추수한 모든 것을 자신의 창고에 저장하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농부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얻은 소산을 먹고 마시며 영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본소득이 농민을 시작으로 실시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훼손된
생명과 삶의 존엄성을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뿌리이자 도시 교회의 모태가 되는
농촌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도시와 농촌의 교회가 서로 연대하며 상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농촌선교주일 교독문]

인도자 : 온 땅과 하늘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회 중 :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드린 헌신의 손길을 통해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회 중 :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인도자 : 주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시심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회 중 :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소서.

인도자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따스한 햇빛과 바람과 비와 땅의 양분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주어짐을 알게 하소서.

회 중 : 땀 흘리는 농부들의 수고가 곧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소득을 얻게 하소서.

인도자 :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생명과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드높이게 하소서.

회 중 : 주님을 머리로 모신 모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교회의 온전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농촌교회신조]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생명의 밥으로 오시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땅 온 마을에 가득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빚은 흙과 생명을 보듬어 안은 땅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며,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농부의 땀과 자연의 기운을 통해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며, 흙에서 배우고 흙을 돌보며 생명을 일구느라 땀을 흘리는 농부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믿나이다.

땅은 더럽힐 수 없으며,
결코 사고 팔 수 없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삶과 일을 나누고 섬기는 농촌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온 식구가 일한 뒤에 나누는 밥상이
진정한 주님의 성찬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논과 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만물에 깃들어 모든 것을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짐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제목: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농촌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16절

이요한 목사(에덴교회)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은 감리회가 정한 농촌 선교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선교라고 하면 해외선교 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중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현재 농촌교회의 현실을 보면 농촌교회 또한 해외 선교 못지않은 기도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충격적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은 죽어가고 있고 농촌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수도룩하고 짧아도 7-8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수도룩한데 그 역사에 비해 교회는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촌 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않았거나 목회자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현실을 마주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전도하

고 목회합니다. 아니 오히려 도시교회 목회자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농촌 일손을 도와주고 차량을 통해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며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교회의 성도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그로인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부흥하기 힘든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70년대 시작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아래 공업의 노동력 집중 산업을 육성 했습니다.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다 보니 그 대가로 다른 나라들의 농산물을 값싸게 들여왔고 그 결과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다른 나라의 농산물의 수입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TPP 등 끊임 없이 밀려오는 개방농정으로 농촌은 정말 폐허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농촌을 떠날 수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떠난 농촌은 빈집이 늘어갔고 폐허로 변해 갔고 급기야 농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던 교회도 점점 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올해 농촌선교주일을 통해 농촌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볼 때 예수님은

1절-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집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집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일군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어 보냈습니다. 일꾼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일꾼은 일이 끝나기 직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일군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며, 일찍 왔든 늦게 왔든 혹은 일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일군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일을 많이 했든 그러지 않았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누어 준 것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한가정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드는 최소한의 생존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최소한 하루 세끼의 밥을 먹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최소의 비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농촌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부흥은 안 되고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 즉 천국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밑 빠진 독일지라도 끊임없이 물을 부어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최소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농촌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과 관심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농촌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능력주의나 경제논리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심각한 능력주의나 경제논리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경제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으로는 농촌과 농촌교회를 본다면 농촌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농촌교회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여섯 명의 성도들, 그것도 80이 훌쩍 넘은 노인성도들 뿐인 그 교회를 위해 한명의 목회자를 두고 교회를 유지하며 목회를 하는 것은 분명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농촌에 도로를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은 도시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작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능력주의나 경제적 논리로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문제를 품삯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농촌교회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늙고 병든 노인들 밖에 남지 않은 농촌교회, 더군다나 성도들의 수도 십여 명 남짓인 아주 작은 교회, 능력주의로나 경제성으로 보면 이런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겨우 한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모두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서 있을 때, 비로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지치고 힘든 영혼의 쉼을 위해 교회를 찾는다면, 또한 단 한 사람이라도 고단한 삶의 끝자락에서 평안을 위해 교회를 찾아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농촌과 교회를 바라보며 능력주의나 경제적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3.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 생존의 걱정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소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농촌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천국백성이 되지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해도 하루에 두세 번 밖에 없는 버스를 타기 위해 3, 40분을 걸어 가야 하고 다시 그 길을 그렇게 돌아와야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도시 가스를 통해 비교적 싼값에 난방을 하지만 농촌 사람들은 석유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밤이 아니면 보일러를 켜지 않고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추위를 견딥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농촌교회는 젊은 목회자들이 도시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성도들도 실의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가난해서 힘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이런 농촌과 교회를 위해 감리회의 모든 성도들은 힘을 모으고 합심해서 농촌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산다면 과연 그 천국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천국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생존의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교회는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1970-80년대의 농촌 인구는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농촌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겨우 240만 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농촌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서울로 도시로 떠나며 도시교회는 세

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했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교회의 몰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도시교회의 부흥과 대형화는 농촌교회 성도들의 인구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부흥으로 이룬 능력과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농촌과 그곳에 서 있던 교회가 허물어지면 그 다음은 도시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은 대형교회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감리교 농어촌선교 위원회에서는 농촌교회와 농촌사회를 위하여 농민 소득 개선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농촌 기본 소득 실현의 국회 입법을 위해서 또한 감리교 농촌선교사 제도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사회와 교회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번 농촌 선교주일에 포도원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든 함께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목: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16절

이인구 목사(십정중부교회)

감리교회는 2006년 제27회 총회에서 농촌선교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여 매년 추석이 지난 후 첫째 주일을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로 제15회 농촌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연회에서는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농어촌선교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선교주일은 도시 교회의 모태인 농촌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의 먹거리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Pandemic)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모든 곳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농어촌의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농촌선교주일은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5회 농촌선교주일의 주제는 "농촌 그리고 농촌교회, 농민기본소득(레25:29~34/마20:1~15)"**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창1:27)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잘나고 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못나고 어렵고 약한 사람도 모두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일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 댓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더불어 생명의 풍요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이며,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비유를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오전 6시) 해가 떠오르는 6시에 일종의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품꾼들과 한 데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삼시(오전9시), 육시(12시)와 구시(오후3시)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제 십 일시(오후5시)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며 이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면 이 비유에서 늦게나마 간신히 들어갔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이들은 고정 일군인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일용직 노동자 즉 하루하루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며, 그들은 기술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반대로 나이가 아주 많거나,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이나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인은 일당을 계산해 주면서 모든 품꾼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마20:14)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창1:27)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시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평등한 상태에서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약육강식이나 승자독식의 각박한 실정이 이어진다면 가난한 농촌의 현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유와 풍요로운 도시는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며,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도 농촌에 머무르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벗어나 버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청지기로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아낌없이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여,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앞장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를 향해 복음의 빛진 자로서, 나눔과 공정한 분배의 풍성함을 힘써 실천하여 농어촌교회가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마20:8)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겠습니까? 그것을 본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1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속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1 데나리온만을 받았습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강약이나 노동 시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가족과 형편을 먼저 본 것입니다. 본문의 품꾼들은

일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지 일을 안 하거나 일부러 일을 조금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한 몸된 농촌 사람들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노동의 강약이나 노동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족과 형편을 본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노동의 강약이나 노동 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형편을 살피는 모습을 가져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는 농촌이 회복되고 재건할 여건과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공생하여야 하며,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나 서로를 모른 척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모두 한 몸된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매사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농촌이 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가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손이 발더러 쓸 데 없다 하거나, 눈이 귀더러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농촌의 고난과 역경을 방관하지 마시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뿌리산업이 무시된다면, 농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경제대국이 절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을 도외시키고, 2차, 3차, 4차 산업 중심의 수출주도의 성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농산물은 확대를 당하고 있고, FTA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옴으로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농촌의 소득은 점점 더 줄어 들어가고, 경제규모는 축소되어 농촌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젊은이들이 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고 농민들은 FTA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겼고, 날이 갈수록 영농 빛은 늘어나 근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부와 어부가 생산한 생산물이 도시민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면, 생산자인 농어민은 얼마나 헐값에 그 생산물들을 넘겨야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출하를 위해 수개월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100% 투자만 하고 겨우 수확한 생산물을 출하했는데 제값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하며 눈물 흘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는 농민의 소득 역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과 보장을 갖춘 사회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에도 재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농촌도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농촌이 노쇠해 가는 것을 바라보며 농촌을 돌보는 일과 농촌에서 자기 손이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고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과 그들을 선교하는 농촌교회를 돕는 일에 교회와 교단이 앞장서고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훈계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과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고 하셨습니다.

농촌이 맞고 있는 인구 감소, 출산력과 노동력 약화, 낮은 소득과 부실한 문화시설 등의 위기는 곧 ‘농촌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학교들의 통폐합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는 농촌의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농촌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물론 도시교회도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만 농촌교회는 더욱 심각한 단계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농촌교회입니다. 농촌교회는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고 농촌사회의 마을이 사라짐에 따라 교회가 비어가는 공소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인이 없으면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도시교회의 선교비로 버티고 있는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며, 노후는 고사하고 생계를 위해 사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목회자가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교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농촌교회의 자립도는 약화되고 목회자들도 좌절하게 될 것이며,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농촌 교회는 지도자의 결핍, 경제적 어려움, 성장의 저조, 젊은 층의 부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에 유능한 목사는 도시로 가기를 원하고 농촌교회는 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교회를 지원하는 목사가 적고, 신학생들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농촌교회의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장년층의 부재입니다. 농촌에서 육성시켜 재목이 될 만하면 진학, 취업, 군입대, 결혼 등으로 모 교회를 떠나 농촌교회는 노인들과 부녀자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농촌교회의 청년인구가 이렇게 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도시 교회는 점점 비대해지나 농촌교회는 계속 허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의 농촌교회

는 미자립(未自立) 상태여서, 경제적 자립은 농촌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는데 현실은 암담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자가 부임했다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아 농촌교회의 자립책과 이에 따른 방안이 신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국가가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일은 농촌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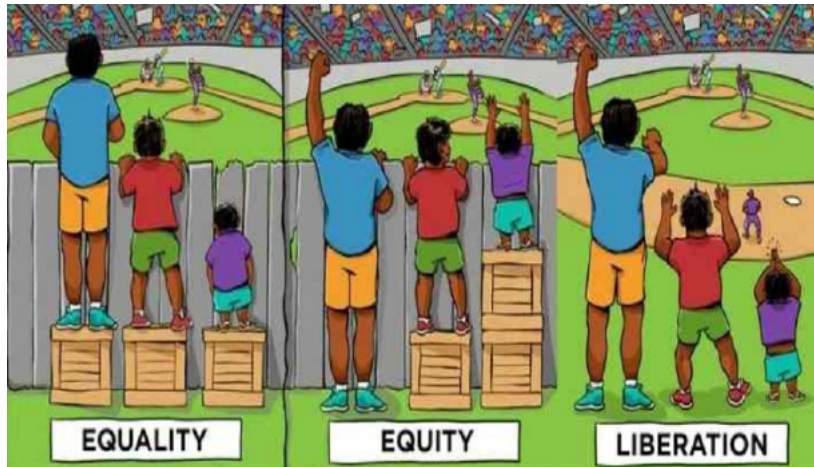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제15회 농촌선교주일을 맞아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농촌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받을 보수가 1/10 데나리온이고 나머지 9/10는 주인이 은혜로 베푸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뿌리이므로 농어촌의 고난과 역경을 방관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무거운 짐을 나눠지어 농촌교회를 향해 복음의 빛진 자로서 나눔과 공정한 배분의 풍성함을 힘써 실천하며 국가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농어민들에게도 영·육간에 안전망이 구축되어 농촌교회와 농촌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뿌리 된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목 차 -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은 정당한가?
3.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4. 누가 농민인가?
5. 농민기본소득의 액수는?
6.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7. 공익형직불제, 농어민수당과 연계방안은?
8. 농민기본소득으로 충분한가? 농촌기본소득의 가능성은?
9.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을 어떻게 바꿀까?
10. 농민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

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이와 성별,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특정한 범

표. 기본소득과 복지정책과 관계

구분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기본소득	0	0	0	0	0
재난지원금	×	0	×	×	×
생계급여	0	0	×	×	×
실업급여	×	0	0	×	×
기초연금	×	0	0	×	×

1) 기본소득 5대 원칙: 보편성, 정기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지급)

주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없는 보장소득입니다. 즉 재산과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어디에 쓸 것인가 정하지 않으며 어떤 노동이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으로 개별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득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공동체적 전환의 기초이며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 선언입니다.

2. 기본소득은 정당한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미국의 독립운동가로서 건국의 아버지인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더 좋은 삶에 대한 상상’**

“땅은 자연상태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땅이 경작되어 개인소유가 되는 것은 개선했던 가치이지 땅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땅의 소유자는 그 땅의 기초지대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셈이다. 그 기초지대를 걷어서 21살이 되었을 때 한 번, 그리고 50살 때부터 매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 것은 토지소유 제도의 도입으로 자신의 천부적 유산을 빼앗긴 모든 사람의 정당한 권

리이다.”

쉽게 말해 땅은 인류 공통의 ‘부’라는 것이죠. 땅뿐이 아닙니다. 태양, 물, 공기 등의 모든 자연, 지하자원, 지식, 제도, 빅데이터, 주파수 등 ‘인류 공통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는 모두의 ‘부’라는 생각에 기초해 그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1982년부터 모든 알래스카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온라인활동은 모두 빅데이터로 모아져 플랫폼기업²⁾이 큰 수익을 얻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천정보를 가진 ‘우리’에게는 그 수익이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본소득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으로부터 모두의 ‘몫’을 배당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3.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데 왜 농민만 주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부터 주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왜 농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기후위기와 코로나19는 제도화된 문명사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적인 전환을 통해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자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환을 모색해갈 것입니다.

둘째 농업은 국가운영의 필수 기간산업으로서 식량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이용규제뿐 아니라 농산물가격도 정부의 직간접 통제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농민과 농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시 중심의 개발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결과로, 대부분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63.3%로 1년 농업소득은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2018년)

넷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농업·농촌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많은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기후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시로의 이농을 막고, 과밀 집중된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연스러운 인구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소멸도 막고 도시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2017년 리스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차 총회에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적 먹거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농업 부문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와 같이 ‘농업기본소득’은 기본소득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 누가 농민인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할 때 처음 부딪치는 문제는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 4항, 5항에는 “농·어·민”이란 표현이 있지만, 각종 법령에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농민’이란 표현 대신 “농업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기준³⁾은 너무 느슨해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농업인’을 양산하였습니다. 거꾸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고있는 ‘농업경영체’가 되려면 1,000m²이상의 농지 소유 혹은 법률적 임차가 필수인데, 그 결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임차농이나 농업노동자, 여성농민과 고령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1,000㎡이상의 농지 경영/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능 범주이기 이전에 사회적 범주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혹은 ‘농업경영체’ 기준에서만 농민을 규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농업인이지만 농민이 아닌 사람을 빼야 하고, 농업경영체는 아니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포함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 제1조에서 농민의 개념은 농업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이나 은퇴자, 토지가 없는 농업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이 되는 농민을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경영주 및 농업 종사자) ② 농업경영체에 1년 이상 등록된 이주 농업노동자 ③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했더라도 1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시군에서 20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은퇴한 70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실거주 여부와 실제 생산의 참여 여부를 행정력만으로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표. 농가 및 농업경영체 현황 (단위:천 가구/명)

구분	농가통계('20)	경영체통계('19)
가구수	1,036	1,686
구성원	2,317	2,460
구성비율	2.2	1.46

별로 (가칭)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자를 추천·심사·현장조사하여 ‘수급자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5. 농민기본소득의 액수는?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근본원리에 따라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럼 개인 1인당 어느 정도 지급해야 적절할까요?

농민기본소득의 액수는 농민 개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여 '작목선택과 노동시간(면적)'에서 여유를 갖고, 농촌공동체의 의미있는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같은 소득보장이 주어져야 합니다.

2019년 연간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2인)은 약 3,300만원인데 반해 연간 농가 1인당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2.3인)은 1,869만원으로 그 격차는 약 1,431만원에 달합니다.

이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월 12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겠지만 예산확보 방안등을 고려하여 당장은 차이의 1/4을 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농민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고 농업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참여소득으로 지금의 농민기본소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 + 농업참여소득' 형태로 기본소득 체계가 전환될 것입니다.

6.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 현재 통계청 발표 기준 농가인구는 231만7천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

업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민등 여러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더라도 통계청 발표 농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을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민 1인 당 월 30만원(연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볼 때, 연간 8조 3,412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인 16조 2,856억 원입니다. 만약 여기에 농민기본소득 8조3,400억을 더하게 되면 24조6,256억으로 2022년 정부 예산계획안 593조원을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4.15%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내년에 농정예산을 국가 예산의 4.15% 정도로 높이기만 해도 위의 농민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정예산만 그렇게 늘릴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가 예산이 평균 6.5% 증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5% 증가했을 뿐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예산이 평균 4.2% 증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1.2%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표. 최근 5년간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증 가율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예산 증가율	3.7%	7.1%	9.5%	9.1%	8.9%
농식품부예산 증가율	0.8%	0.08%	1.1%	7.6%	2.3%
농식품부예산 /국가예산	3.6%	3.4%	3.1%	3.1%	2.9%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3년간 국가예산이 7.1%, 9.5%, 9.1% 증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

은 0.08%, 1.1%, 7.6%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농정예산 증가율에 비추어 볼 때, 농정예산의 비율

을 높이자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던 예산 편성을 교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각종 생산보조금이나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농촌 개발 사업을 축소하고, 각종 간접사업 예산 절감, 농어촌상생기금 내실화, 행정비용 절감만으로도 1~2조의 재원을 추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로 볼 때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을 꼭 농식품부 예산에서 찾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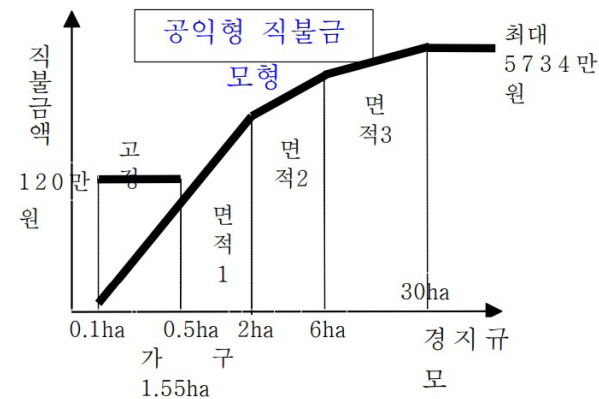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취지를 놓고 본다면 기존의 농업예산의 범위가 아닌 별도의 농민기본소득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을 병행하는 공감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표. 각국의 농업예산과 농업직불금 비교

구분	우리나라	유럽
농업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10~20%	50~70%
농가소득 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약 4%	약 30%
농업예산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17%(2018년 추정치)	EU 71.7%(2016) 참고: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6)

7. 공익형직불제·농어민수당과 연계방안은?

1)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9개의 직접지불제도가 대농위주로 설계되어 80%에 이르는 중소농의 소득안정망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① ‘쌀+밭+조건불리 직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② 기본형 공익직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③ 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 추가 됩니다.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개 편 전		⇒	개 편 후	
쌀소득	고정		공 익 직 불 제	소농직불금
보전직불	변동			면적직불금
발농업	고정			경관보전직불
직불	논 이모작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논활용직불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1~0.5ha 기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은 논/밭을 통합하고 진흥 지역 밖은 논과 밭을 구분하여, 농업인 기준 0.1~2ha를 1구간, 2~6ha를 2구간, 6~30ha를 3구간으로 하여 구간이 높을수록 단가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 면적직불 구간별 지원단가

구분	(천원/ha)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30ha이하)
논·밭 진흥지역	2,050	1,970	1,890
비 진흥지역(논)	1,780	1,700	1,620
비 진흥지역(밭)	1,340	1,170	1,000

그러나 공익형직불제는 우리 농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의 고정소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면적중심 직불제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유지 및 증진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들이 자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한 결과 전국 9개 광역지자체가 도입하였으며 농가별로 연 60만원~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개별지급)

농어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배경에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영비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이미 시행되어온 소득지원 및 경영비 지원이 한계에 다다르며 지방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지원 정책(조례)으로 발전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으나 농가별 지급에 따른 여성농민과 청년농민 배제, 월 5만원에 불과한 소액지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농민수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성과 위에서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3)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각자의 특성과 지위를 갖고 출발하지만 상호보완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편, 발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익형직불제와 농어민수당은 공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헌법적권리를 옹호 실현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사무로써 각자의 특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바 상호 보완하며 발전시켜나가고 일정 시점에서 단일한 소득안전망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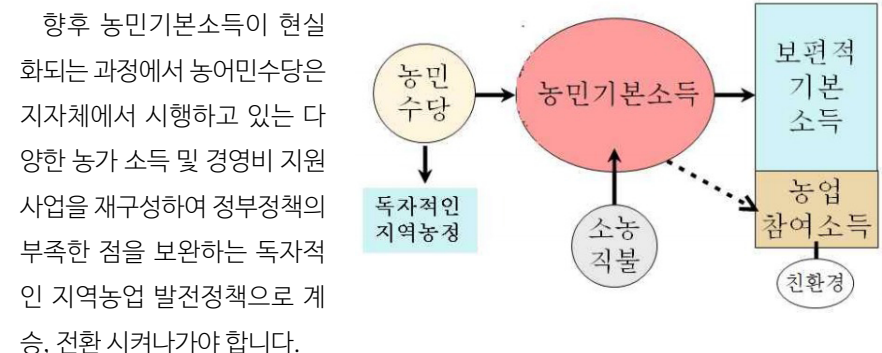
농어민수당이나 공익형직불제와 달리 농민기본소득이 갖는 차별성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려는 목표와 동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농민을 위한 소득지원정책이 농민에게만 국한된다면 사회적 반발로 인해 일정 액수 이상 인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실현은 전국민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기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단계에서 농어민수당은 공익형직불제 확대와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자체로 발전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 농어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농민기본소득의 발전관계



8. 농민기본소득만으로 충분한가? 농촌기본소득의 가능성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 중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없애지 않으며,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공공성, 무상보육, 노후보장 등의 ‘보편복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소득만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도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도 교사도 교육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아프면 대도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화생활을 위한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서비스,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그동안 약화되어 온 신뢰와 규범, 교환과 보상, 협동과 갈등 해소라는 농촌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도시로 떠난 청년들, 도시에 염증을 느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공동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농민과 함께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비농민의 경제·사회·공동체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농촌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생산의 주역인 농민이 다수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통계청(KOSIS)/국토교통부 자료는 두 개의 기준으로 농촌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2019) 비도시인과 농촌인의 규정이 상이하여 농촌과 비농촌을 가려내기가 어렵고 ‘읍,동’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시 도시

민으로 농촌기본소득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용도지역기준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비도시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인구수	47,596,532	4,253,329	47,240,850	4,609,011
	91.80%	8.20%	91.11%	8.89%
분류기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읍,동	면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39개 동 지역에 5,179 농가. 15,442명의 농민이 있는데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촌기본소득을 받을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 이후에도 ‘농업참여소득’으로 존속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굳이 농민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간 정거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이 농민기본소득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경제·지역·공동체 목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전 사회적 실현으로 얻을 수 있으며 농민기본소득이 도입·실현되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전국민기본소득으로 발전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것은 망해가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9.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바꿀까요?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작은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월급은 농업 농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농민의 최저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실질적 자유의 폭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규모화 단작화등 생산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해결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기회요인이 커 집니다. 아울러 각자의 농민기본소득을 종자돈으로 각출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공유 자산)의 실험과 실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의 성격으로 인해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농촌의 자치기반이 서서히 살아날 것입니다. 면 단위 주민 자치의 근거가 생기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면서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 마을이 유지되면 국토와 자연, 생태 환경을 지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농민기본소득은 과밀화된 도시 인구의 분산,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0. ‘농민기본소득법’의 주요 내용

‘농민기본소득법’이 허영국회의원을 대표발의로 하고 국회의원 65명의 공동발의 참여로 2021년 6월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공론화 된 지 10여 년 만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결성된지 1년 반 만에 국회에서 공론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법은 총 7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입법안 주요내용
제2조 (정의)	2.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 가 등 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민기본소득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

	립된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업종사자.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② 농민기본소득은 매달 3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1백만 시민의 힘으로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의 배너를 클릭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1)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결성 및 입법추진 과정

- 2020년 2월18일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결성
(상임대표 유영훈, 운영위원장 차흥도) 34개 단체 참여
- 2020. 6.23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100 만 서명운동 선포식
- 2020. 8. '농민기본소득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소책자 발간
- 2020. 10. 7. 강원본부 창립
- 2020. 10.23. 농민기본소득운동의 현 황과 입법화 심포지엄
(주최:전국귀농운동본부,대산농촌재단, 환경정의)
- 2020. 10.28. 농민의길-농민기본소득 운동본부 토론회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20. 11.3 농민기본소득 국회토론회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과제와 전망)
- 2020. 11.10. 충북본부 창립

- 2020. 11. 전북본부, 경북준비위 창립
- 2021. 3.8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 장 면담(이원택의원)
- 2021. 3.30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위한
총 회장 목회 서신 발표
- 2021. 4.13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 회 간담회
- 2021. 4.19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농·어 촌본부와 간담회
- 2021. 4.29 농민기본소득 입법 촉구 강원본부 기자회견
- 2021. 6.7 농민기본소득 입법 촉구 국회의원 서신발송
- 2021. 6.11~18. 농민기본소득법안 공동발의 요청 국회의원 면담 진행.
- 2021. 6.22 농민기본소득법 발의



참고 2)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구성

- ☐ 창립: 2020년 2월 18일
- ☐ 공동대표: 강남훈, 유영훈, 이세우, 이재욱, 조완석
- ☐ 감사: 김영향, 유정길
- ☐ 광역지역조직: 강원도운동본부, 충북도 운동본부,
(준비중인곳: 전북,전남,경남)

[참가신청]

- *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 *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
- 카카오뱅크 3333-18-924491 차흥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녹색평론,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 한살림연합,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불교환경운동연대,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경기참여농정포럼,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천귀농학교, 한국YWCA연합회, 상생포럼, 전남농민운동동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녹색연합, 부산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한살림생산자연합, 한국YMCA연맹, 농촌과자치연구소, 아이쿱생협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지역재단, 기본소득당, 녹색당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정의당농어민먹거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전국농어민위원회, 미래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f7EVrX_oc&t=8s

농민에겐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겐 국민기본소득을!

[illegible]

- 서명을 받으신 후 농촌선교훈련원(043-873-0053)이나
감리회본부 선교국(02-399-4333)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합정빌딩3층

청년플랫폼 '위드워드' 홈페이지 <http://nongmin.or.kr>
밴드 [<https://band.us/@nongmingibon>]
페이스북 <https://bit.ly/3943D0f>